

맨주먹 상경

25년만에 1500평 사옥 준공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고객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입니다. 또 하나는 나와 성문인쇄사가 오늘과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업한다는 핑계로 집안 일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이해해준 집사람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2일, 성문인쇄사 장현수(60)사장은 회사 창립 25주년과 성문빌딩 준공 기념식 자리에서 아내(서갑숙·57세)에 대한 애정 표현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남편의 이러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다못해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는 내조자의 모습에 식장의 분위기는 이내 엄숙해졌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컸지만 누구보다 고마운 우리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박수를 유도하는 남편의 한 마디에 아내는 또 어쩔 줄을 몰랐고, 엄숙함 속에 행사를 지켜보던 하객들의 진심 어



지난 3월 12일 열린 성문인쇄사 창립 25주년·성문빌딩 준공 기념식 모습

린 박수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됐다.

지난 1979년 중구 인현동에서 인쇄기 한대로 시작, 25년 만에 성문인쇄사를 중견 인쇄회사로 성장시킨 장현수 사장의 성공 스토리 내면에는 크진 않지만 사소한 것부터 챙길 줄 아는 따뜻함이 함께 했다.

인현동에서 인쇄시작

충남 홍성군이 고향인 장 사장의 사회 생활은 인쇄가 아닌 70년대 당시로서는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의류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영업사원 노릇은 오래가지 못했고, 교장 선생님이 되었던 아버지, 역시나 교직에 몸담은 형 등 교육자 집안의 가풍과 당시 인쇄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형님의 권유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서 수동 국전 인쇄기 한대로 지금의 성문인쇄사를 설립하게 된다.

서른 다섯에 시작한 성문인쇄사 운영은 주변 인쇄인들로부터 ‘젊은 사람이 하는 인쇄업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특유의 성실성은 금세 주변의 평가를 무마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문인쇄사 초창기에는 젊은 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도맡았는데 특히 사무실용 캘린더 인쇄물이 많았다.

“우리가 캘린더 전문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캘린더 인쇄물이 제일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발주업체들은 그저 아무 때나 인쇄사에 의뢰만 하면 캘린더가 나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 캘린더는 계절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거래처는 많고, 부수는 적고, 오는 손님들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은 빨리 해달라고 보체지요. 당시에는 캘린더 시즌만 되면 몸무게가 한 7kg씩은 빠졌던 것 같아요”

설렁설렁 넘어갈 만한 일들도 꼼꼼한 그가 말하면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서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당시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중간에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퇴근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일에 몰두하다 보면 통금시간이 다가오고 방법대원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쫓겨 삼일빌딩 뒤편 여관 골목으로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나

마 그 여관방들도 늦게 오는 사람에게선 차디찬 꼭대기 방을 줘요. 방 없으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고생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깐. 다들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으로 되돌릴 줄 아는 그에게 그 시절은 오히려 약이 됐다.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 봤으니깐 회사 운영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회사 운영 철칙 중에 하나가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이나 한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사장 잘못 만난 탓이지요. 해서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 운영 철학 탓에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연건평 1500평을 자랑하는 사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쇄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의 모든 회사 운영이 그렇게 보수적이지는 않다.

그가 투자에 인색한 것은 비수기를 만났을 때 놀릴지도 모르는 설비투자에 대한 부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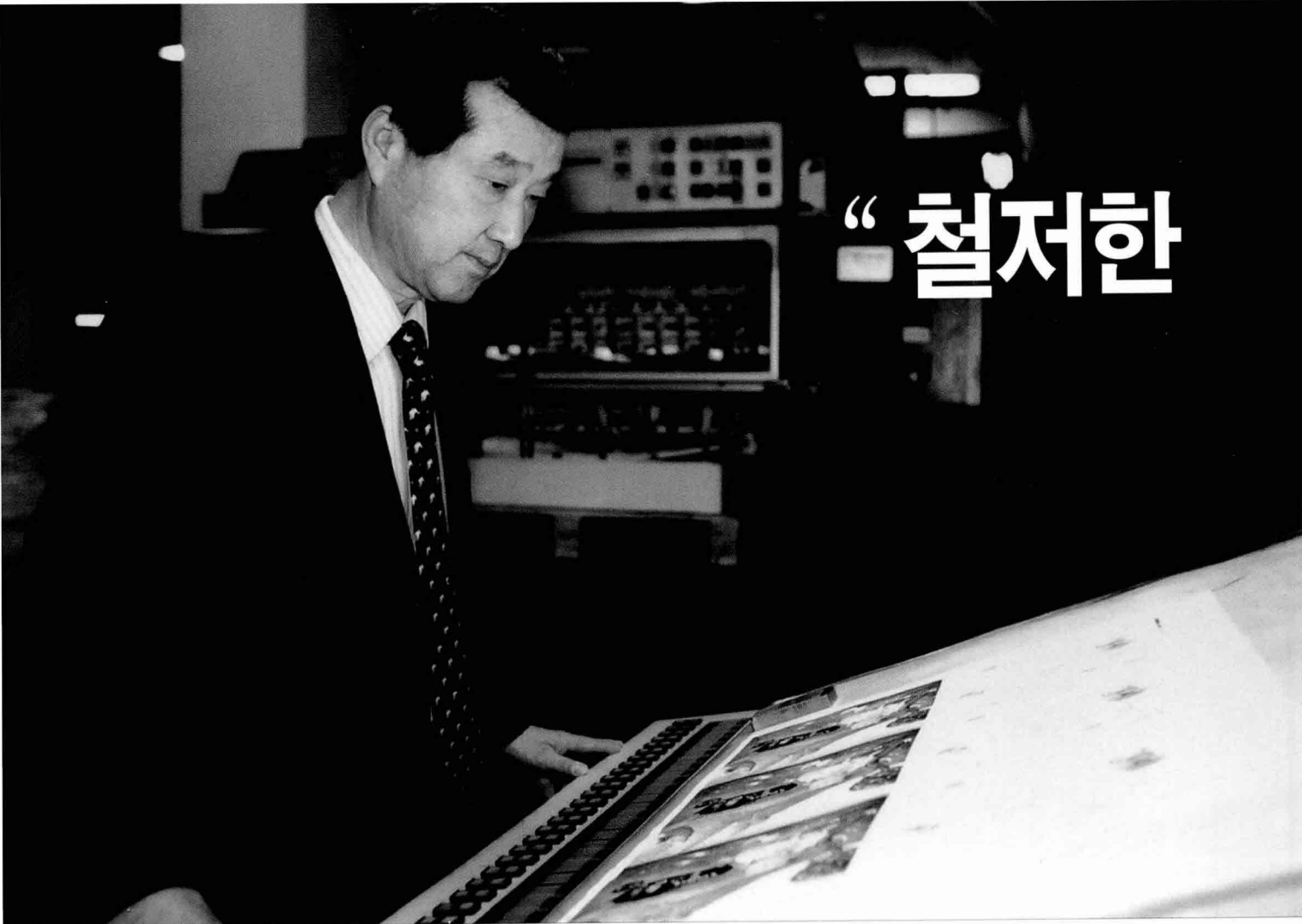
회사의 생존 가치를 높이는 데 그는 결코 인색하지 않다. 이미 지난 1980년에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디자인 담당 부서를 설립했다.

남들이 인쇄기 유닛 하나라도 늘려서 좀 더 많은 인쇄물을 뽑아내기에 여념이 없을 때에 직접적인 재화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여줄 부서를 창설한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공격적인 경영인 것이다.

자사 인쇄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디자인 부서에 대한 애착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장 사장은 추후에 자신의 회사를 이끌어갈 2세인 장완호 대리를 남들처럼 영업부나 기획부가 아닌 디자인 부서에 배치 시켜줬다.

장 사장은 “인쇄업체가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

“철저한



스로 자생력을 지니지 못하고, 거래처의 물량 발주만 기다리다 생긴 일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디자인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왔습니다. 당장에는 디자인 파트에서 큰 수익을 창출하진 못하겠지만 향후에 해외시장 진출과 인쇄물 고급화를 통해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디자인 파트가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라며 디자인 분야에 대한 배려 이유를 설명했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지만 장사장의 디자인 부서에 대한 배려는 2003년 3월에 발족한 카드 사업 부서인 ‘카드로(www.cardro.biz)’에서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성문인쇄사에 있어 ‘카드로’의 설립 운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수주산업에 매달리는 인쇄업은 그 한계가 있다. 한번 발주처가 영원한 발주처가 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이지만 성문인쇄사는 ‘카드로’를 설립함으로써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는 인쇄사로 한 단계 성장할 근간을 마련한 셈이다.



장현수 사장은 1980년 디자인 부서를 만들었다. 직접적인 재화를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디자인부서의 창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공격적인 경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문인쇄사 연혁

- 1979년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81-63번지에 성문인쇄사 설립
- 1980년 디자인 부서 설립
- 1984년 서울시 중구 인현동 181-1번지로 이전, 시설 증설
- 1985년 사진 제판실 증설
- 1987년 대국전 2색기 도입
- 1989년 대국전 1색기 도입
- 1994년 6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15-7 부지 매입, 8월 성문개발 사업자 등록, 11월 성문사옥 완공, 12월 대국전 4색기 도입
- 1995년 2월 통슨기 도입, 4면 자동 접착기 도입
- 2002년 5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15-9 부지 매입
- 2003년 3월 카드사업부 ‘카드로’ 발족, 6월 성문빌딩 상량식
- 2004년 3월 성문빌딩 준공식 및 성문인쇄사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품질관리, 앞만 보고 달렸다”



25년 결실 성문빌딩 준공

지난 3월 12일에 준공식을 가진 성문빌딩은 장 사장의 25년 인쇄사업 결실이자 또 다른 성문인쇄사의 역사를 이끌어갈 근간이다.

지하 2층 지상 10층 등 총 12층으로 구성된 성문빌딩은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관은 성문인쇄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관은 대부분 임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채 200여 미터가 되지 않

는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방문객의 내방이 유리하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 졌다는 게 장 사장의 설명이다.

2002년 11월에 착공식을 가져 채 1년 6개월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완공된 건물이지만 부지 선택에서부터 따지자면 5년이 넘게 걸린 성문빌딩 준공 기간에 장 사장은 온갖 정성을 쏟았다.

“부지 선택에만 한 3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근접의 용이성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 다녔지요. 그리고 공사 기간에는 평일 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건설 공사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일요일에 개인 모임이라도 끝이 나면 잠시라도 잠을 내서 이곳부터 들렀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문빌딩 때문에 주변 지가가 올라갔다는 기분 좋은 소리도 듣고 있고요”

인쇄사업 진출 25년 만에 12층 짜리 사옥을 가졌지만 조그만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

덕분에 성문인쇄사 초창기에 근무를 하다 결혼을 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난 이들도 아직까지 장 사장을 잊지 않고 찾고 있고, 장 사장 역시 그들이 찾아오면 전철역까지 배웅하는 자상함을 보이고 있다.

직원들만 그를 찾는 게 아니다. 그의 꼼꼼한 일 솜씨를 잊지 못한 매니아들은 그가 캘린더 인쇄를 많이 다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찾아온다.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장 사장의 배려는 연말이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역시 크진 않지만 많은 사람을 위한 ‘가진 자의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재경 홍성고등학교 총 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에도 남다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늘날 성문인쇄사의 성공에는 작은 것부터 소중히 할 줄 아는 장 사장의 배려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담 유창준 국장·사진 이용우 기자)